

LCWR
2025 연총 - 조지아 주 애틀랜타
제임스 마틴 James Martin, SJ

**걱이지 않은 희망:
예수,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미국 내 여자수도회의 미래**

먼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여 참으로 기쁩니다. 늘 그러하듯, 가족 상황 때문에 거의 오지 못할 뻔 해서 화상으로 발표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아서 가능한 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좀 더 자제하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사람 중 연로해져서 걱정이 되는 분이 없으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나이듦에 대해 걱정이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맞죠? 저도 절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니었어요. 나이도 들지 않고 내가 함께 살고 일하는 예수회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린 점점 더 젊어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농담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도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매년 성소의 은총을 받고 있지만, 노령화되어가는 수도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그런 수도회에 속합니다. 물론 모든 수도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의 좀 더 전통적인 일부 수도회는 성소가 넘쳐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개발 도상국에서는 많은 남녀수도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브람빌라 수녀님이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도회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톨릭 수녀들은 제게 영웅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입니다. 제 나이 대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달리, 저는 예수회에 입회하고 나서야 가톨릭 학교를 다녔습니다.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주일 미사 후에 체스넛 힐 성요셉수녀회(CSJ) 수녀님들로부터 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메리 수녀님이 “오, 하느님”으로 시작하는 통회기도를 가르치면서 칠판에 큰 글씨로 “오”를 써주었던 것이 오래된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할 일이, 저는 주일 아침이면, 가톨릭 학교 학생들 책상을 뒤지곤 하던 공립학교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27 세에 예수회에 입회하면서 가톨릭 수녀들을 알고 이해하며 심지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수련기를 지내면서 받은 첫 강의 중 하나는, 교회내 여러 성소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의였는데, 바로 펜실베이니아 주 바덴 성요셉 수녀회 소속 모린 클라크 수녀님의 강의였습니다. 수녀님은 근처에서 교정사목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수도자를 만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이분이 가톨릭 수녀라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의는 제가 미국 내 여자수도자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년 간의 수련기 동안, 옛날의 가톨릭 수녀는 물론 최근 우리 시대의 가톨릭 수녀, 제가 예수회에 입회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엘살바도르에서 순교한 네 명의 교회 여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10 여년에 걸친 양성기간 동안 여자수도자들은 영적지도자(Maddie Tiberii 수녀, CSJ), 교수(Janice Farnham 수녀, RJM[자비 수녀회]와 Meg Guider 수녀), 나의 롤모델(Helen Prejean 수녀, CSJ), 나의 멘토이자 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심이 없었고 가난했으며 순명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했으며 정결을 지키며 사랑이 넘쳤고 예언적이고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남녀 수도자들이 사도직 문을 닫고, 여러 회를 통합하고, 회원들의 죽음과 성소 감소, 심지어 여러 수도회가 뉴욕 소재 자비의 수녀회가 “완전히 마무리짓는 길”이라고 일컬은 바를 식별하는 것 등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입니다. 동시에 여자수도자들은 여전히 가톨릭 교육, 사목 활동, 사회 정의, 영적지도 등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온갖 종류의 사도직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매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회들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와 신자가 아닌 이들이 아직도 수녀들을 도덕적 리더십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기도 중에, LCWR 팀과 또 다른 여자수도자들과 대화 중에, 저는 우리의 숙고를 위해 성경의 틀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제가 수녀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조언하는 한 남자. 그것도 교회 내에서. 그러나 그동안 제 삶에서 수녀님들이 베풀어 준 은총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잉태를 알리고, 마리아가 복잡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생활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예”라고 응답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의 수도생활 연륜과 마리아 영성을 살고 있는 여러 수도회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해서는 이 전에 다 들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역사와 관련된 무엇, 어쩌면,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라자로를 살린 이야기에 대한 숙고를 나누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라자로 이야기는 저의 최근 도서의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책을 깨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라자로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이해할 틀로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신자로서 또 동료 수도자로서, 동시에 여자 수도회들이 직면하는 것과 같은 도전과 기회를 직면하고 있는 수도회에 속한 자로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는 사랑, 질병, 죽음, 애도, 솔직함, 개방성, 불확실성,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사랑, 우리 모든 수도회와 개별 성소 시작의 원천이자 근원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라자로가 아프다는 전갈을 예수님께 보낼 때, 여러분이 예상하듯 “라자로 오빠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제자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약성경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무엇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 어로는 *hon phileis* 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성소, 공동체, 사도직 그리고 우리 미래의 토대입니다. 우리의 창설자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물론, 엄밀한 신비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예수님과 신비적인 혼인 상태에 들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탈혼 상태에 빠진 것처럼, 적어도 베르니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인격에 매료되었고 그래서 기도 중에 그분과 시간을 보냈으며(어쩌면 신비적인 순간의 체험도 있었겠지요), 복음을 공부하고 성사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생활하는 동안 만나거나 생활했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이냐시오가 말했듯,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라자로를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지 않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아주 많은 방식으로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를 하든 간에 거기서 시작하고 마르타와 마리아가 겪었던 것처럼 만사가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라도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이해에 의존해야 합니다.

두 자매가 오빠의 질병에 대해 예수님께 전갈을 보낸 후에, 놀라운 일, 어쩌면 혼란스럽기도 한 일이 생깁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나(한국어 성경은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으나, 신부님이 사용한 영어는 accordingly-따라서-입니다.)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르셨다.” 따라서? 음, 적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하고 무관심한 듯 보이는 태도에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이 마음 속에 울리는 것을 듣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아는 예수회원 두 명이 성학대 문제로 사도직을 떠나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또 그런 일이. 모두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하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보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왜 더 이상 성소가 많지 않을까, 왜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애정을 기울인 사도직 문을 닫게 되는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사랑하던 피정집 중 하나인, 우르술라 수녀회에서 운영하던 뉴욕 주 라인백에 소재한 린우드 영성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두 자매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말입니다. 남자수도자와 다른 많은 이들은 물론 가톨릭 수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은 모든 수녀와 모든 수도회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계획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라자로를 도우려 곧바로 오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데 필요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 혹은 예수님이 라자로에게 치유보다 더 나은 것을 주려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은 가고자 할 때 가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보겠지만, 결정적으로, 자매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자신의 느낌에 직설적으로 솔직합니다.

자, 제자들이 라자로의 죽음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라자로가 “잠든” 것이라고 하며 가서 깨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요한 복음서에서 자주 그러하듯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보통 말하는 잠이라고 여겨 “곧 일어나겠지요”라고 말합니다. 요한 복음서에서 흔히 보듯, 누군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말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듯이. 예수님은 “라자로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이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예수회 관구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수십년 동안 수천 명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해 오면서 피정자들 뿐 아니라 예수회원들의 사랑을 받았던 피정집 몇 군데를 매각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 웨스턴의 캠페온 쇠신 센터 문을 닫았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만레사 피정집과 롱 아일랜드 성 이냐시오 피정집을 매각했으며, 더 가슴 아픈 일은 과거 메릴랜드 관구 수련소였던 펜실베이니아 주 워너스빌에 소재한 예수회 영성센터를 매각했습니다. 심지어 더 안타까운 점은 기증자인 니콜라스와 제네비에브 브래디

부부가 그곳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지었던 건물에서 유해를 거두어 예수회 묘지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일을 직면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기부하는 삶을 살았던 브래들리 부부처럼, 자매들의 사랑을 받았던 라자로처럼, 어떤 일들은 죽어버립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앞서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애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도직과 집들과 사건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삶의 일부이며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 기여한 사람들이지만, 죽었습니다. “라자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념하고 음미하며 하느님께 넘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예수 마리아 수녀회 소속인 재니스 파른햄 수녀님에게 어떤 사도직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나아가 여자 수도회들 일부가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람의 일생과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행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요. 어떤 점에서 자연스런 순리입니다.” 죽음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삶의 일부이고 수도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듯이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라자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예수님에 이르기 전에, 감정을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베타니아에 도착했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합니다.

이제, 요한 복음서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인물 성격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살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개성이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 이야기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타니아의 그들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타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그릴 때 대부분 마르타가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타가 음식 준비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디아코니아 *diakonia*, 모든 사도직 혹은 봉사를 하고 있음을 불평한다고 전합니다. 신약성서 학자인 에이미-질 레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르타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다”고 동의해온 이유 중 하나가 마르타를 부제라는 말의 어원인 디아코니아와 연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예수님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집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타*의 집에 있습니다. 라자로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침내 며칠간 지체한 후에-우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듯한 변화를 기다릴 때처럼,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라자로의 무덤에 왔을 때, 마리아는 대놓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합니까, 비교적 고요한 때, 자신의 집에서도 또 스트레스의 시간인 오빠 무덤에서도. 마르타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할 때에만 그렇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주교 시노드 대의원으로 뽑혔을 때, 누군가가 제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이런 저런 일을 얘기하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손가락까지 흔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지요. “저는 교황님께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황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통과 죽음과 상실에 대해 하느님에게 솔직하라는 초대입니다. 마르타 역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실 것임을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빠가 묻힌 곳을 묻자, 마르타는 “와서 보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힘있는 초대입니까! 마르타는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 때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뭔가를 보도록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보도록 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무덤에 이르자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라자로를 두고 슬퍼하는 표시라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흔히 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학자들은 그리스어로 사용한 말이 슬픔보다는 분노에 더 가깝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는 듯하다고? 왜 그럴까? 어쩌면 죽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 어쩌면 다가올 죽음에 대해(즉, 라자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야기하는 것이기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믿지 않은 탓에 하느님께서 답답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돌을 치워라.” 얼마나 이상합니까! 왜 라자로가 그냥 등장할 수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 예수님은 군중에게 기적에, 자유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 자매, 형제들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초대받듯이. 우리 수녀들과 우리 수도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까? 우리 수도회에 그러한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르타는 뭔가 다른 것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타는 악취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하듯, 마르타는 실질적인 것, 합리적인 것, 사실에 신경씁니다. 예수님이 마르타를 위해 마련한 뭔가를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도 주목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썩은 듯한, 냄새나고 심지어 죽은 듯한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란이나 의심 혹은 두려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기꺼이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르타에게 묻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마르타는 우리 모두가 그리하듯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믿습니다. 앞서 마르타는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마르타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르타의 신앙과 솔직함에 대한 보상인 듯,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이가 수도자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무덤 속의 어두움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여전히 믿고 희망에 차 있으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면서.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친구인 재니스 파른헨 수녀님에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의 수도공동체에 속하든 이것이야말로 말로 우리가 받는 초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극적인 정점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리 나와라!” 그리고 여기서 저는 라자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도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를 고착되게 하거나 묶여있거나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무덤 안에 두고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수도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두려움입니까?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두려움입니까? 뭔가를 뒤에 남겨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후회를 무덤 안에 남겨둘 수 있습니까? 혹시

원한이나 악의나 실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버려두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무엇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둘째로, 제가 쓴 책에 대해 줌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여성이 나눈 통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여성은 죽음에서 되살아난 라자로가 무덤을 누워있을 때 세상 누구도 한 적 없는 결정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수도자로서, 젊은 수도자든 연로한 이든, 우리 공동체가 확장하고 있든 쇠퇴하든 간에, 아니면 설립 중이든 마무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든 간에, 처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개인으로서 또 수도 공동체로서, 우리만의 고유한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걱정의 별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에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영적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선물과 은총도 갖고 있습니다. 재능과 기술과 희망과 계획 등.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아무도 이와 똑 같은 문제와 가능성들을 갖고 있지 않아, 하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처했던 상황이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그 누구도 해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자로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라자로로 하여금 그 초대에 응답하도록 해주었습니까? 바로 이 사실입니다. 라자로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았습니다.

라자로는 무덤을 떠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혹은 자기 계발서를 읽었기 때문에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자로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았기 때문에 무덤을 떠났습니다. 라자로는 그 목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인 이유는 오로지 한 사람(인격)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라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식별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는 이-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라자로는 머리와 발이 수의로 감싸인 채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수의는 접혀서 무덤에 놓여 있었던 반면, 라자로는 수의를 입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라자로에게는 수의가 다시 필요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시 한 번 더 군중에게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회원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어디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수의를 풀어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향한 움직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새로 부활했음을 보고, 우리의 수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자로에게 새로운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썄요, 라자로는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봅시다.

이야기에 나오는 마르타와 달리, 악취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약속에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카 복음서에서처럼,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도전을 주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마르타는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특정 시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징표에 따라,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염원이 크게 변하고 있고, 보다 전통적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젊은 층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조배 신심, 카를로 아쿠티스와 피에르조르조 프라사티 같은 현대 성인에 대한 신심, 보다 전통적인 전례 등 전통적인 신심을 추구합니다. 이 회의장에는 젊은이들을 동반하고 가르치고 상담해주면서 평생을 보낸 수백 명의 수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느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젊은이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서 그들을 동반하고 그들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젊은이 회년에 로마에 모인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점을 보았습니다. 우리 창설자들이 가르쳐 준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산 경험을 통해 얻은 어떤 공동체 체험이 그들에게 공동체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많은 일에 바쁘면서 정작 올바른 일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요? 수도회 리더로, 조직과 사도직 리더로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일을 하고, 관계를 쌓고 다리를 건설하며 우리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사해주기를 바라는 데서 자유로운지요? 친숙한 데서 오는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지요?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마르타 일기를 써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는 초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요? 시대의 징표에 바탕을 둔, 몇 년 전과는 다른 징표에 바탕을 둔, 이 시대의 일을 어떻게 규명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비록 좋은 일을 많이 하느라 바쁘더라도 복음의 일에서 벗어날 때면, 서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르타들의 공동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요약하자면, 마르타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는 내적으로 더 자유로워짐으로써 보다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세상에 또 서로에게 관상적인 현존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요? 라자로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서둘러 맞으러 가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리아는 뭔가를 행해야 한다는 데서 자유롭습니다. 대신 듣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마르타를 다소 성가시게 하는 뭔가를 합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서서 기도하고 더 들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마리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식별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라자로처럼, 우리를 옴아매는 것은 무엇이나 버릴 수 있습니까? 살고 사고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만들고 응답하는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그런 다음 그런 수의를 무덤에 두고 나와서, 죽음이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님을-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이해하고, 우리가 처한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장소임을 알며,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익숙하지 않은 땅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거나 위축되지 않게 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 중 하나는 예수회 전임 총장이자 하느님의 종인 페드로 아루페 신부님이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종류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고, 참으로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잃어도 괜찮은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입니다. 우리 존재, 너무나 우리의 일부가 된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삶을 한결같이 보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세속적인 편견, 확신, 태도 가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 습관 등 우리 존재의 어떤 것 바로 우리의 낡은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라자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라자로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를 신뢰하며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남녀 수도자인, 가톨릭 신자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한 초대가, 실제로, 우리 삶의 매일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목소리에 또 “이리 나와라”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